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IV. 치유의 사람, 하늘이 열린다.

1. 치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사야 61: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치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재 가운데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실재를 통한 내 삶의 변화를 말한다. 여기서의 변화란 '회복'이라 말할 수 있겠다. 본질의 회복이다. 본질의 회복이란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 회복이 치유를 통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치유를 생각할 때,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다시 서는 놀라운 삶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에덴의 중심에 두신 것과 같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이 이사야 61:1절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본질이시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4-5]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다. 가지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산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란 존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 또한 영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업적, 사역 등 심지어 인간들의 사랑과 같은 일들도 결국 사람과 함께 그 운명을 달리한다. 알라딘의 '지니'처럼 어떤 누군가의 손에 올려진 램프와 같은 운명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이사야 61:1절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 말씀이지만 예수님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정체성과 같은 말씀이다. 치유란 그 영원함 위에서 회복되는 일이다. '다시'라는 불안함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란 고통에서의 영원한 자유를 말한다. 완전히 정복된 상태이다. 고통이 완전히 정복된 상태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이다. 고통, 눈물이 없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16-17]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다시는 고통, 눈물이 없다. (눈물은 고통의 상징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회복하셨다. 고통, 질병,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즉,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치유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으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 말은 죄와 그로 인한 죄성에서의 자유이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죄인 된 본성이 완전히 정복되는 순간이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리된 마음이 정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성이 주는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함께하고 싶고,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만 남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정렬된다. 사역, 업적, 성과, 성공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선다. 그래서 내 사역을 희생해서 남을 세우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이 남는 것이다.

이제 이사야 61:1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내가 ‘치유의 사람’이 되어 하늘문을 열어야 한다. 그 영원한 문을 열어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질병, 고통, 가난, 모든 문제 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2. 나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다.

기름부음이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먼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땅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 때 내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명확해진다. 다른 차원이 된다. 다른 레벨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때 기적이 내 삶에 실재가 된다. 나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다.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3.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이다 즉 승리, 소망, 기쁨의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구원이다.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알아야 한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모든 것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알아야 한다.

궁허한 소식이 아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필요가 채워지는 소식이다. 필요는 중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시기를 구하라. 내 신앙이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진짜를 보는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진짜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일이 일어난다. 아름다움을 발견했기에 덧가지불이 기꺼이 시작된다. 시간, 재정,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로웠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진짜 아름다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재적 치유와 자유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 아름다움은 실재이다. 진짜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모든 영역에 진짜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4. 하나님의 사람 - 치유의 사람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예배안의 치유)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이 진정한 ‘치유’이다. 회복이다. 이 모든 것이 실재가 된 십자가를 보자. 십자가 신앙을 붙잡자.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영광의 십자가이다. 승리의 십자가이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안에 있는 나를 보라. 회복된 미래의 나를 보라. 겹지만 아름다운 나를 보라. 십자가 위에 진짜 능력이 있다.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1에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 위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예배이다. 그가 이미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가 이미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이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라는 찬양이 있다. 왜 이 찬양이 이 시대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지 이해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이토록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치유가 필요한 때이다. 이제 치유의 사람이 되어 하늘 문을 열라. 그때에 보좌에 계신 어린양 예수를 보게 된다. 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

보좌 위에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다. 예배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회복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치유가 있다. (우물가 여인의 예배가 그 예이다. 회복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치유가 나타난다. 조이풀이 추구해야 할 예배가 바로 이 하늘의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 치유할 것이다. 감격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미 치유되고 회복된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리고 감사하자.